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Social Support

임안나*, 박영숙**

광운대학교 광운한림원*,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hn-Na Lim(lan22@kw.ac.kr)*, Young-Suk Park(mimi@hyo.ac.kr)**

요약

본 연구는 2014년에 조사한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조사 5차 부가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7,763명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에, 주된 생활비를 본인과 부부가 마련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조직과 노(老)-노(老)케어 그리고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중고령자 | 사회적 지지 | 정서적지지 | 삶의 만족도 | KReIS |

Abstract

This study used the fifth additional data of the panel research on security for the aged conducted by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in 2014, and studied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life targeting 7,763 middle- and old-aged people in their 50s or older. Social support, one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satisfaction about life, had a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about life, and materi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big influence.

■ keyword : | Middle-aged and Older People | Soci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 KReIS |

I. 서론

중고령자들은 직장에서의 퇴직과 경제상태와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긍정적이지 않은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중고령자들은 다른 연령층이 가지는 문제와 더불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퇴되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심리적 소외를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경제적 능력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1].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사망으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어 중고령자들을 상실감과 고독감에 빠지게 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2]. [3]의 연구에 의하면 중고령자의 43%가 종사상의 지위가 변경된 이직이나 퇴직을 경험하였으며 소득보다는 지출

접수일자 : 2016년 10월 31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6일

교신저자 : 박영숙, e-mail : mimi@hyo.ac.kr

의 증가폭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중고령 기간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긍정적이지 않은 변화가 많은 중고령 기간의 연장과 고령화 속도는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베이비부세대를 포함하는 중고령자들은 정년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려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4]. 중고령자들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과 부모에 대한 부양 등은 이들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부양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 하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족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3]. 중고령자들은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긍정적이지 않은 변화가 더해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직장에서의 은퇴와 퇴직은 직장생활 위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생활 범위를 가족관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5], 이는 사회적 지지의 축소로 이어진다. 또한 중고령자들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활동반경이 작아진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집밖에 나가지 못하는 중고령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활동을 그만 둔 인구집단의 경우에 경제상태, 건강수준, 삶의 만족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처럼 사회적 관계망인 사회적 지지의 축소는 소속감, 일체감의 상실과 심리적 고립감을 갖게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고[6],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 물질적 지원과 인정, 관심 등의 지원을 얻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7]. 중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은 지금까지 살아 온 자신의 삶에

대해 통합감을 제공하며 길어진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축소를 경험하는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고령자의 복지감을 제고[8]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성공적 노후를 보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일부의 연구는 표본수가 적어서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9], 조인과 관심[6]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Lin, N. & Dean, A.[10]은 사회적 지지가 보살핌, 관심, 사랑, 인정, 도움, 이해, 가치감 등을 포함한 타인, 집단,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라고 하였다. [11]은 사회관계 속의 개인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도움에서 나타나는 관계와 행동, 자원, 평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관계 속에서 위태로울 수 있는 개인의 정서나 정신상태를 보호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은 중·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House[12]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 사랑, 감정이입 등의 정서적 표현,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의 도구적 도움, 상황에 대한 정보 및 자기 평가에 관련된 정보 등의 평가이며 이 중에서 하나 혹은 둘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 간 교류라고 정의하였다. [2]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년기 건강과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13],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하여 인간의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지각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14]. 정서적 지지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위로, 존중, 수용, 친밀감, 신뢰, 감정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보호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한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물질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돈, 유형의 물건,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해 주고 인정, 조언 등을 해 주는 것이다[15]. 중고령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으며 따라서 사회적 지지도 덜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6]. 사회적 지지는 유배우자가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9]. 송현주[1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집단, 취업자 집단, 공적연금 수급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13], 이는 삶의 만족과 연관된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18],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거나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9].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인 상태로 자기가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인생의 만족감에 대한 인지이다[20].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욕구 충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

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으로부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개인의 기대와 현실적 보상사이의 일치이다[21]. 노인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2], 정명숙[22]의 연구에서 세대별로 살펴본 삶의 만족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보다 노인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사회적 은퇴와 이로 인한 소득감소, 신체건강 쇠퇴 등 삶에 대한 만족감이 저하될 요인이 젊은 사람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이 객관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18]. 삶의 만족도는 유배우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9],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성별 간 차이는 일관되지 않은데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23],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22]. 교육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26], 경제활동상태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25]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24][26], 질병이 없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았다.

3.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65세 이상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비 지원과 물품 지원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9]. 또 사회적 관계망과 친구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4].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가치관의 일치도 등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24]. 미국의 70세 이상의 노인 237명을 대상으로 한 Adams, T., Rabin etc.[2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연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Kooshair et.al.[8]은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지지 유형 중 감정적인 다정한 지지가 삶의 만족도의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 주장한다.

중년 남성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

게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7][28] 나타났다. Siu & Phillips[29]는 여성노인의 경우에 가족과 친구의 다정한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Luong, C., & Fingerma[30]은 젊은 노인들보다 후기노인들이 그들의 사회교류에서 더 적은 부정적인 경험, 더 많은 만족감과 긍정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뉴욕의 한국 이민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부분적으로 삶의 질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31]. 호주 시드니 거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도 가족관계, 친구관계, 의미 있는 타자를 통한 교류 등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며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모델

본 연구는 2014년에 면접법에 의해 조사된 국민연금 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패널가구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고령자 패널조사이다. 부가조사는 패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패널관리와 본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에 갖고 있으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50대 이상 7,763명이다. 이 중 남성은 3,386명(43.6%), 여성은 4,377명(56.4%)이었으며, 50대가 2,583명(33.3%), 60대가 2,121명(27.3%), 70대가 2,255명(29.0%), 80대 이상이 132명(1.7%)이었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및 분석

본 연구의 측정을 위해 사회적 지지는 Cohen & Syme(1985)에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이 1985년 개발한 척도를 1998년 조명환과 차경호가 번안하여 사용한 한국형 삶의 만족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평균차이는 .19로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127, p=02). 배우자 유무의 평균차이는 .69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3.92)에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8.051, p=000), 종교 유무의 평균차이는 .1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3.511, p=160). 연령이 낮을수록(F=18.058, p=.000), 학력이 높을수록(F=46.400, p=.000), 경제수준이 좋을수록(F=674.012, p=.000), 건강상태가 좋을수록(F=472.554, p=.000), 삶의 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구성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평균(3.9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부만 이루어진 가족(3.90)이었으며, 1인 가구의 평균(3.3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1.383, p=.000). 생활비 마련방법에서는 본인과 부부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3.92) 공적·사적 이전소득(공적연금 제외)으로 생활비를 마

런하는 경우(3.44)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8.369, p=.000$).

표 1.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	3386	3.89	1.33	6.127*
	여	4377	3.70	1.33	
연령	50대	2583	3.95	1.32	18.058***
	60대	2121	3.77	1.31	
	70대	2255	3.69	1.34	
	80대+	132	3.80	1.33	
교육 수준	무학	982	3.38	1.25	46.400***
	초졸	2292	3.61	1.29	
	중졸	1373	3.71	1.34	
	고졸	2218	3.94	1.30	
	대졸+	207	4.26	1.31	
배우자	있다	5662	3.92	1.30	8.051***
	없다	293	3.23	1.44	
종교	있다	3758	3.84	1.33	3.511
	없다	4002	3.73	1.33	
가족구성	1인	1188	3.33	1.34	61.383***
	부부	3188	3.90	1.30	
	부부+ 자녀	2393	3.95	1.20	
	본인+ 자녀	818	3.57	1.32	
	기타	176	3.34	1.40	
경제 수준	하	3119	3.17	1.31	674.012***
	중	4527	4.17	1.17	
	상	116	5.14	1.15	
건강 상태	나쁨	2267	3.20	1.35	472.554***
	보통	3187	3.79	1.19	
	좋음	2309	4.34	1.25	
생활비 마련방법	본인+ 부부	5479	3.92	1.31	108.369***
	이전	2282	3.44	1.32	
	기타	2	3.00	1.41	

변인들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485, $p<.01$)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정서적 지지(.435, $p<.01$), 정보적 지지(.370, $p<.01$), 물질적 지지(.438, $p<.01$), 평가적 지지(.426, $p<.01$)는 모두 삶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은 상호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하위요인들 간에 상호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하위요인들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은 다중공선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공차한계가 0.1 이상, 분산팽창요인은 (VIF)은 10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정서적 지지(공차한계=.390, VIF=2.565), 정보적 지지(공차한계=.474, VIF=2.112), 물질적 지지(공차한계=.512, VIF=1.953), 평가적 지지(공차한계=.373, VIF=2.679) 모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사회적 지지전체	삶의 만족도
정서적 지지	1					
정보적 지지	.662**	1				
물질적 지지	.609**	.598**	1			
평가적 지지	.736**	.654**	.648**	1		
사회적 지지전체	.865**	.852**	.837**	.882**	1	
삶의 만족도	.435**	.370**	.438**	.426**	.485**	1

회귀분석을 통해 통제변수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 본 결과 통제변수인 연령(.120, $p=000$), 교육수준(.046, $p=002$), 경제수준(.572, $p=000$)과 건강상태(.329, $p=000$)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315, $p=000$), 정보적 지지(.053, $p=.037$), 물질적 지지(.295, $p=000$), 평가적 지지(.149, $p=000$)도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32.6%의 설명력을 보였다. F값은 387.153으로 .00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β 값을 기준으로 볼 때 통제변수에서는 경제수준, 건강상태, 연령, 교육수준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서는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순

서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

구분	삶의 만족도			
	B	β	t	
연령	.120	.079	6.513***	
교육수준	.046	.038	3.313**	
경제수준	.572	.222	19.899***	
건강상태	.329	.190	16.732***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15	.155	9.459***
	정보적 지지	.053	.031	2.085*
	물질적 지지	.295	.172	11.787***
	평가적 지지	.149	.082	4.930***
R ²	.326			
Adj R ²	.325			
F	387.153***			

*p<.05, **p<.01, ***p<.001

IV. 논의

노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중고령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 상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중고령기의 삶의 만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증가한 관심만큼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고, 일부의 연구는 표본수가 적어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50대 이상의 7,76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는데[8][23], 이는 Kong et. al[32]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ooshair et.al.[8]의 남성이 없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종교 유무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앙심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Park et. al[3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24][26][27]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Kooshair et.al.[8]의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삶의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젊은 노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Luong, C., & Fingerma[3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그리고 주된 생활비를 본인과 부부가 마련하는 경우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모두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령은 집단 간 차이에서는 연령이 낮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Luong, C., & Fingerma[30]의 연구와는 일치된 결과이나 [24][26][27]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24][26][27]와는 같은 결과이다. 특이한 점은 통제변수 중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에 비하여 많은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모두 삶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들 중에서는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의 설명력이 높았는데 이는 Kooshair et.al.,[8]의 주장과 Siu & Phillips[29]의 다정한 정서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7][9][27][31][33][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질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사

회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제활동 욕구를 가진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고령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고령자들이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노(老)-노(老)케어 등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령자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가족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남해성, 손명호, 권순석, 김순영, 박형철, 이정수, 손석준, 이정애, 최진수, “광주광역시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건강관련 삶의 질,” 노인병, 제4권, 제3호, pp.172-190, 2000.

[2] 박용순, 송진영, “만성질환 남성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7권, pp.79-96, 2012.

[3] 강은나,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 변화,” Issue & Focus, Vol.236, pp.1-8, 2014.

[4] 박능후, 최민정, “중고령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p.325-354, 2014.

[5] 윤지은, 전해정,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제29권, 제2호, pp.743-759, 2009.

[6] 정일영, 김찬우,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서울시 거주 중고령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1호, pp.149-168, 2015.

[7] 강양희,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344-353, 2016.

[8] H. Kooshair, N. Yahaya, T. A. Hamid, and A. A. Samah, “Gender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Among Social Support Func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Malaysians,” Journal of Women & Aging, Vol.26, pp.22-38, 2014.

[9] 김정엽,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제20권, 제2호, pp.29-62, 2010.

[10] N. Lin and A. Dean, “Stress-Buffer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65, No.6, pp.403-417, 1977.

[11] 이경숙, “정책집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243-252, 2011.

[12] J. S.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1981.

[13] S. Cohen and T. A.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No.2, pp.310-357, 1985.

[14]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15] 임안나, 박영숙,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기간원고.

[16] 김현문,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7] 송현주, 박주란, 임란, 이은영,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전략-국민노후보장 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5.

[18] 임안나, 박영숙,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노년기 시작연령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 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pp.349-364, 2015.

[19] 박자경, 엄명용,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재활복지, 제13권, 제4호, pp.1-23, 2009.

[20] 김미경, 김귀분,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9권, 제2호, pp.150-158, 2013.

[21] 하춘광, “호주 시드니 거주 한인 중년층의 사회

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연구-문화적응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2호, pp.193-225, 2015.

[22] 정명숙,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제4호, pp.87-108, 2005.

[23]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4권, 제3호, pp.13-29, 2004.

[24]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46, 2000.

[25] S. Murrell, F. Norris, and Q. Chipley, "Functional versus structural social support, desirable events, and positive affect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Vol.7, pp.562-570, 1992.

[26] K. A. McClelland, "Self-conception and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Vol.37, No.6, pp.723-732, 1982.

[27] T. Adams, L. Rabin, S. V. Da, M. Katz, J. Fogel, and R. Lipton, "Social Support Buffers the Impact of Depressive Symptoms on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Clinical Gerontologist, Mar-Apr2016, Vol.39, Issue2, pp.139-157, 2016.

[28] 김학권 윤상영,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대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 및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제5호, pp.269-281, 2015.

[29] O. L. Siu and D. R. Phillips, "A study of family support, friend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women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55, No.4, pp.299-319, 2002.

[30] G. Luong, S. T. Charles, and K. L. Fingerma, "Better with age: Social relationship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8, No.1, pp.9-23, 2011.

[31] J. Park, S. Roh, and Y. Yeo, "Religiosity,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Gerontologist, Vol.52, No.5, pp.641-649, 2012,

[32] F. Kong, J. Zhao, and X. You, "Social support mediates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mental di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3, Issue4, September, pp.513-517, 2012.

[33] 남현희, "척수손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pp.1-22, 2011.

[34] 유원종 이상호 서삼기 권오성 김양호,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K-MBI, 우울증, 사회적 지지 척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제7권, 제2호, pp.145-151, 2013.

저 자 소 개

임 안 나(Ahn-Na Lim)

정회원



- 2007년 : 광운대학교 행정학박사
- 현재 : 광운대학교 광운한림원 부교수

<관심분야> : 중고령자, 교정복지, 사회적 경제

박 영 숙(Young-Suk Park)

정회원



- 2002년 : 광운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재 :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 교정복지, 인권복지, 노인복지